

# 중국 용정지방 달라재 전통농가 정지간과 생활행위\*

## Activities in the Chung-Ji-Kan of the Dallajae Traditional Farmhouse in Lungching, China

고 도 임\*\*

Koh, Do Yim

윤 복 자\*\*\*

Yoon, Bok Cha

박 남 희\*\*\*\*

Park, Nam Hee

최 형 선\*\*\*\*\*

Choi, Hyung Seon

---

### Abstract

This paper is a part of "The Study of The Traditional Korean Ethnic Farmhousing in Yanbian, Chin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ctivities of the Chung-ji-kan(the combined kitchen and major ondol living room), of the traditional farmhouse. It is based on a survey of 124 households in the farm villages of Lungching, China.

Survey research methods included a field study in Dallajae. A questionnaire was used to conduct this study.

The major findings are : 1) the average family is 3.25 persons and the nuclear family type is prevalent; 2) the building plan of the farmhouse is the Ham -Kyoung-Do 'double file' dwelling type, the average 5.2kan(51.1m<sup>2</sup>) house; 3) the Chung-ji-kan ondol is the important center of activities for the farm family; thus the sitting life style of Korean ondol culture continues in Yanbian, China.

---

\* 본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지원한 '96년도 국제협력 연구과제로 가톨릭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와 연변대학 조선문제연구소의 공동연구의 일부임.

\*\* 정희원,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교수

\*\*\* 정희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교수

\*\*\*\* 정희원, 가톨릭대학교 소비자주거학과 Post-Doc, 강사

\*\*\*\*\* 정희원, 연세대학교 주거환경학과 강사

# I. 서론

## 1. 연구의 배경과 의의

남한에서 한국의 전통주택과 농가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북한의 전통주택과 농가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남북한의 외교관계가 단절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우리 나라와 중국의 국교가 1992년에 정상화된 시기를 전후하여 중국 조선족에 관한 자료와 서적들이 쉽게 입수되고 있고 우리나라 학자들도 중국을 왕래하면서 여러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연변에 거주하는 조선족의 개항과 농가에 대한 연구도 차츰 증가하고 있다(김광익 ; 1987, 박경휘 ; 1987, 집필소조 ; 1988, 전경수 ; 1989, 김숙련 ; 1991, 이광규 ; 1992, 리화선 ; 1993, 한상복 ; 1993, 강영환 ; 1994, 김봉렬 ; 1994, 박경휘 ; 1994, 신재역 ; 1994, 심혜숙 ; 1994, 이왕기 ; 1994, 연변대 출판위원회 ; 1995, 울산대 건축연구소 ; 1995, 국립민속박물관 ; 1996, 김종영 외 ; 1996, 권태환 ; 1996).

위의 자료 중에서 연변 조선족(朝鮮族)<sup>1)</sup> 농가의 개항을 보면 아직도 여러면으로 더 깊게 연구해야 할 여지가 많다고 보이는데, 특히 농가 생활과 농가 주택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취락 구조, 건축 구조와 공간 및 재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대부분 그 집속에 사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중국 땅에 이민 가서 생활하는 우리 동포의 주거문화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려면 그 집속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조사도 병행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통 농가 답사시 그 집의 주부(主婦)나 가구주(家口主)를 직접 면담하여 그들의 주거 생활의 여러 측면의 현황과 변화 모습, 즉 일종의 유사종단연구(類似縱斷研究)<sup>2)</sup>를 하고자 한다.

그런데 달라재<sup>3)</sup> 지역은 함경도와 가깝고 현재도 함경도 주민들과의 접촉도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으로서 이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한다는 것은 장차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 주민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이 지방의 주택과 주생활 방식에 관한 자료는 주택건설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의 산업체를 위한 기초 자료가 되는 데에도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전통농가 주택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한다.
- 2) 정지구들의 규모를 파악한다.
- 3) 정지간에서의 생활행위를 분석한다.
- 4) 가구 보유 및 비치 장소를 파악한다.

## 3.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현지 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관찰, 기록, 실측, 사진촬영, 녹음을 한다. 특히 생활문화적 측면의 실태와 특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자세히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활용하고 심층면접을 녹음한다. 이 때 사용한 설문지는 본 연구팀이 작성하여 예비조사(1995년 7월)를 거쳐 구조화한 것이다. 조사된 가구는 총 124가구이며 분석에 사용된 가구도 124가구이다. 자료 분석은 SPSS/PC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수, 백분율, 분할표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팀은 연변대학 조선문제연구소와 공동으로 1996년 11월부터 1997년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본조사와 보완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범위는 중국의 동북삼성 즉 요녕성(遼寧省), 길림성(吉林省), 흑룡강성(黑龍江省)이지만 실질적으로 조사된 곳은 용정의 달라재지방 즉 길림성 용정시 지신진(吉林省 龍井市 智新鎮)의 명동촌(明東村), 신동촌(新東村), 영암촌(英岩村), 대흥촌(大興村)의 4개 자연부락이다.

조사대상 농가는 건축된 지 10년 이상의 전통농가로서 새로 지은 농가와 벽돌집은 제외되었다. 또한 약간의 예외는 있으나, 이사온 지 10년 이상된 가구가 대상이 되었고, 조사대상 응답자는 40세 이상의 주부나 가구

주 혹은 노주부(老主婦)로 하였다.

## II. 조사 결과 및 논의

### 1. 전통 농가의 일반적 특성

#### 1) 마을과 주거의 개관(概觀)

용정시 지신진은 지신촌, 신동, 장재, 명동, 대흥, 동신, 원동, 성남, 성동, 덕수의 10개촌으로 이루어졌고, 총 33개의 자연문(屯)을4) 포함하고 있다. 이 10개 촌 중에서

신동, 명동, 대흥촌과 영암촌(지신10문) 등 4개 촌에서 124가구를 정밀조사 하였다.

한편, 명동촌, 영암촌, 대흥촌은 마을 개척 시기가 19세기 말이고 신동촌만 20세기 초이다. 4개 마을 모두 개별 이주촌으로 절대 다수가 조선족 농민들이다. 지신진 전체의 가구수는 1,248호로 총인구는 5,355명이다. 조사된 4개 촌의 총인구는 1,701명인데 이는 지신진 인구의 31.8%에 해당된다.

〈표 1〉 사회인구학적 특성

N=124, f(%)

항 목	분 포	분 포		평 균
		호 주	주용담자	
연 령	30세미만	6( 4.8)	-	호 주 53.6세 주용담자 52.9세 주 부 50.9세
	30~39세	14( 11.3)	17( 13.7)	
	40~49세	33( 26.6)	34( 27.4)	
	50~59세	28( 22.6)	29( 23.4)	
	60~69세	25( 20.2)	38( 30.7)	
	70~79세	17( 13.7)	6( 4.8)	
	80세이상	1( 0.8)	-	
	계	124(100.0)	124(100.0)	
교 육 정 도	문 맹	10( 8.1)	15( 12.1)	-
	국문해독	1( 0.8)	1( 0.8)	
	소 학 교	25( 20.2)	30( 24.2)	
	초급중학교	78( 62.8)	67( 54.0)	
	고급중학교	10( 8.1)	11( 8.9)	
	계	124(100.0)	124(100.0)	
직 업	농 업	121( 97.6)	123( 99.2)	-
	군 인	2( 1.6)	-	
	공무원	1( 0.8)	-	
	교 원	-	1( 0.8)	
	계	124(100.0)	124(100.0)	
종 교	없 음	117( 94.4)	116( 93.5)	-
	천주교	4( 3.2)	4( 3.2)	
	개신교	3( 2.4)	4( 3.2)	
	계	124(100.0)	124(100.0)	
가 족 수	1 인	2 ( 1.6)	3.25명	
	2 인	38 ( 30.6)		
	3 인	29 ( 23.4)		
	4 인	44 ( 35.6)		
	5 인	4 ( 3.2)		
	6 인	7 ( 5.6)		
	계	124 (100.0)		

## 2) 농가의 특성

### (1) 농가의 사회경제적 특성

조사 대상 농가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이 중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가족수가 평균 3.25명이라는 점인데, 1990년 3.6명(권태환 : 1996)과 1993년 3.62명으로 조사된(강영환 : 1994) 가족수보다 0.35명이 감소되었다. 용정지방 농촌의 인구 감소 현상은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표 2>의 가족 유형에서 볼 수 있듯이 첫째, 핵가족화 추세가 더 심화되어 노인부부가족과 1인 가구가 27.4%(34가구)를 차지하고 있고, 둘째, 자녀수가 차츰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족(漢族)은 자녀를 1명밖에 들 수 없으나 소수민족인 조선족은 2명까지 허용되고 있지만 교육비 때문에 자녀를 1명만 둔 집도 상당수 있다.

조사대상 농가 호주의 평균 연령은 약 54세, 설문지에 주로 응답한 주부(대부분은 주부이고, 약간은 호주의 노모임)의 평균 연령은 약 53세이고, 주부의 평균 연령은 약 51세였다.

조사된 농가의 호주와 응답자의 교육정도는 <표 2>에서 보듯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상당히 있다. 우선 문맹률이 호주는 8.1%(10명), 주응답자는 12.1%(15명)로 4%가 더 많은데 이들은 대부분 고령자들이다. 현재는 소학교가 의무 교육이나 옛날에는 그렇지 못해서 가난한 농가에서는 소학교에도 보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호주의 학력 중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한국의 고등학교)를 합하면 70.9%(88명)로 다수를 차지하나, 주부들의 경우는 62.9%(77명)로 8%(10명) 차이가 났다. 즉,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에서도 조선족 농민들 사이에 남존여비사상이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 가구는 100%(124호)가 모두 농업이었다. 그리고 직업에서 호주 3명이 군인과 공무원, 주부 1명이 교원으로 나타나 겸업농가가 4집 있었다. 종교를 보면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종교의 자유가 허용된 지 10여년이 지났으나 3-4명만이 천주교와 개신교 신자이고, 무종교가 남녀 똑같이 91.1%(117

명)로 나타났다.

조사대상가구의 경제적 특성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중국에서 호도거리제도5)가 실시된 후 이 지역 농촌 경제도 차츰 발전하여 식량이 풍부하고, 부업으로 가족도

<표 2> 가족유형 N=124, 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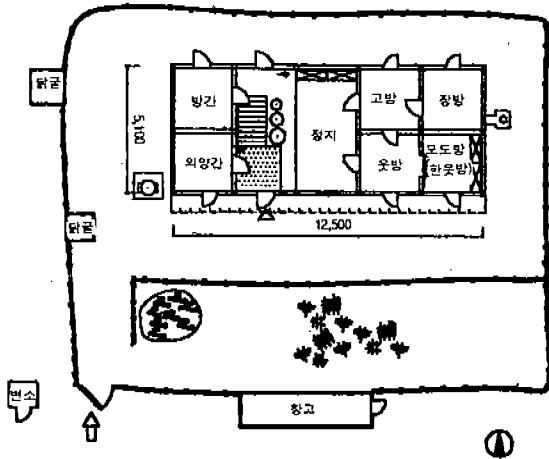
유형 세대	가족유형	계	
		소계	총계
1세대	부부 1인 가구	32 2	34( 27.4)
2세대	부부+자녀 편부/모+자녀, 그 외	60 12	72( 58.1)
3세대	부부+자녀+노모 부부+자녀+손자, 그 외	10 7	17( 13.7)
4세대	부부+자녀부부+손녀+노모	1	1( 0.8)
계		124	124(100.0)

다양하게 사육하고 있다. 평지가 적고 산비탈의 구릉지(丘陵地)가 많아서 논보다는 밭이 더 많다. 즉 논 면적은 가구당 평균 2,269.1㎡이나 밭은 16,351㎡로 논 면적의 7.2배나 된다. 논은 주로 육도하상류(六道河上流) 양편으로 있는데 쌀과 찹쌀을 재배하고, 밭에는 주로 옥수수와 콩, 연초, 조, 사탕무, 잡곡 등을 재배한다. 소득이 높은 경제작물로는 연초와 사탕무가 손꼽힌다. 연 평균 소득은 최소 1,000원(元)6)에서 최대 30,000원, 평균은 10,843원이다. 1년간 세금은 최소 30원에서 최대 30,000원으로 조사되었고 평균은 10,843원이다. 1년간 세금은 최소 30원에서 최대 2,000원, 평균 586.6원이다. 부채가 있는 집이 34.7%(43가구)인데 최소 500원, 최대 20,000원으로 평균 4,709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 (2) 주택 특성

함경도식 양통집은 한 용마루 아래에 각 방들이 점으로 배열되어 있는 집이다. 이 양통집의 가장 큰 특징은 정지간으로 이곳은 부엌 공간과 큰 구들(정지구들)로 구성되어 있다. 즉 부엌과 구들 사이에 벽이 없는 것이다. 이 정지간은 가족생활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중심공간이다. 조선족 농민들이 거

주하고 있는 정지간의 온들은 우리 고유의 난방방식으로 중국동북부 한족(漢族)들의 칸(炕)과는 다르다. <도면 1>에서 보듯이 이 정지간을 거쳐서 옷방, 한옷방, 고방, 한옷고방으로 들어가고 또 부스개<sup>7)</sup>와 바당<sup>8)</sup>에서 쇠오양간으로 출입할 수 있다. 겨울이 길고 추운 지방이기 때문에 부스개에서 불을 뿜 때와 그 후에 여열을 잘 활용하여 사람 뿐만 아니라 가축도 효과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한 구조이다.



<도면 1> 신동촌 이영상씨 대 (함경도식 양통집의 특성을 갖추고 있음)

실내에는 <사진 1>과 같이 대부분 가마솥이 3개 걸려있고, 펌프가 뒷문쪽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그릇장을 2개 정도 놓고 살고 있다.

조사대상농가의 주택 특성은 <표 3>과 같다. 건축연대를 보면 개척단 시대인 1866년



<사진 1> 명동촌 장추길 씨대

에 지은 잡에서부터 1986년에 지은 집까지 다양한 분포를 보이나 1966년~1977년 사이에 지은 집이 32가구, 25.8%로 가장 많았다.

달라재 농가의 칸수를 <표 3>에서 보면 최소 4칸에서 최대 8칸까지 있는데, 5칸집이 34.7%(43호)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4칸집으로 29%(36호), 6칸집 23.4%(29호)의 순이었다. 달라재 지방 농민들은 주로 함경도에서 이주해온 사람들로서 기본적으로는 함경도식의 8칸 집과 6칸 집을 짓고 살며 함경도 풍습을 계승하였다(박경휘 ; 1987)고 하나 조사대상 농가의 평균 칸수는 약 5.2칸이었다. 이는 요즘 농가에서 방이나 창고를 넓게 쓰려고 옷방과 고방 사이의 벽을 헐어 내어 한칸을 만들거나, 쇠오양간과 방아간 사이의 벽을 헐어 큰 창고를 만들어 쓰기 때문이다.

농가의 집터도 집마다 차이가 많은데 최소 70m<sup>2</sup>에서 최대 10,005m<sup>2</sup>까지 있으며 평균 711.5m<sup>2</sup>이다. 비교적 널찍한 땅에 본채와 부속채를 짓고 앞, 뒤로 텃밭을 두고 담배나 채소 등을 재배한다.

주택 규모를 보면 최소 30.8m<sup>2</sup>(9.3평)의 작은 집과 최대 84.0m<sup>2</sup>(25.4평)의 집이 있고 평균은 51.1m<sup>2</sup>(15.5평)이다.

거주기간은 평균 21.9년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라남도 승주지방 농가의 거주년수 41년(고도임 ; 1995) 보다 절반이 조금 넘는 짧은 거주 기간이다. 전통적으로 농민들은 같은 집과 같은 터에서 대대로 살아왔으나, 달라재 지방 농민들은 사회적, 정치적 대격동기를 거치면서 자의 혹은 타의적으로 여기 저기로 혹은 같은 동네에서도 이사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주택의 향은 한국의 전통농가와 비슷하게 75.8%(94호)가 남향이고 14.5%(18호)가 동남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지붕재료는 초가 지붕이 56.5%(70호)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양기와로 34.7%(43호), 제일 적은 것이 한기와로 8.9%(11호)이다. 본 연구보다 2년 앞서서 조사된 연구(울산대학교, 한국건축연구소, 1995)에서

〈표 3〉 주택의 일반적 특성

N=124, f(%)

항 목		분 포	비 고	항 목		분 포	비 고
건축 연 대	1910년 이전	8( 6.5)	옛날집 1866년  최근집 1986년	주택 의 칸 수	4칸	38( 30.6)	평균 5.2칸
	1910~1945년	27( 21.8)			5칸	43( 34.7)	
	1946~1957년	21( 16.9)			6칸	29( 23.4)	
	1958~1965년	27( 21.8)			7칸	9( 7.3)	
	1966~1977년	32( 25.8)			8칸	5( 4.0)	
	1978~현재	9( 7.2)			계	124(100.0)	
집  터 (m <sup>2</sup> )	100m <sup>2</sup> 이하	3( 2.4)	평균 711.5 최소 70 최대 10,005 (m <sup>2</sup> )	주택 규모 (m <sup>2</sup> )	40m <sup>2</sup> 이하	16( 12.9)	평균 51.1 최소 30.8 최대 84.0 (m <sup>2</sup> )
	101~300m <sup>2</sup>	26( 21.0)			40.1~45m <sup>2</sup>	20( 16.1)	
	301~500m <sup>2</sup>	46( 37.1)			45.1~50m <sup>2</sup>	33( 26.6)	
	501~700m <sup>2</sup>	20( 16.1)			50.1~55m <sup>2</sup>	18( 14.5)	
	701~900m <sup>2</sup>	12( 9.7)			55.1~60m <sup>2</sup>	13( 10.5)	
	901m <sup>2</sup> 이상	17( 13.7)			60.1~65m <sup>2</sup>	16( 12.9)	
	계	124(100.0)			65.1m <sup>2</sup> 이상	8( 6.5)	
거 주 기 간	5년이하	6( 4.8)	평균 21.9년 최소 2년 최고 68년	주택 의 향	동남향	18( 14.5)	-
	6~10년	17( 13.7)			서향	2( 1.6)	
	11~15년	30( 24.2)			서남향	10( 8.1)	
	16~20년	22( 17.8)			남향	94( 75.8)	
	21~25년	9( 7.3)		계	124(100.0)		
	26~30년	18( 14.5)		지 붕 재 료	한기와	11( 8.9)	-
	31년이상	22( 17.7)			양기와	43( 34.7)	
	계	124(100.0)			초가	70( 56.5)	
계	124(100.0)	계	124(100.0)				

는 초가지붕이 77%인 것에 비해 본 조사에서는 10.5%나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으로 더 급격히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농가의 소득 증대로 인해서 초가지집을 양기와집으로 개량하고 싶은 욕구도 크며, 또한 용정시 당국에서 새 도로변에 있는 초가지집을 양기와집으로 개량하도록 권장하면서 집 한 채마다 500웬을 무상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본 연구팀이 답사한 지역에서 6개월 동안에 25가구의 초가지집이 양기와로 바뀌었다고 명동의 송 촌장이 증언하였다.<sup>9)</sup>

## 2. 정지간 구들의 규모

달라재 지방 농가의 주생활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공간이 정지구들인데 이 구들의 규모는 같은 한 칸이라도 최소 6.02m<sup>2</sup>(1.8평)에서 최대 15.1m<sup>2</sup>(4.5평)이고 평균 10.0m<sup>2</sup>(3.0평)인데 이 평균치에 해당하는 비율이

25.9%(32호)로 제일 많다. 일반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집은 큰 칸이고 그렇지 않은 집은 작은 칸으로 만든다. 구들의 천정고는 최소 175cm에서 최대 250cm이고 평균은 208cm이다.

## 3. 정지구들에서의 생활행위

달라재 농가의 정지구들은 한국 농가의 안방과 같이 가족의 중심 공간으로서취침과 거공간으로 사용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지구들을 포함하여 각 공간에서의 일상행위를 조사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우선 가족들의 식사 및 단란행위를 보면 대부분 정지구들에서 식사는 100%, 간식은 99%, 가족대화는 96.8%, TV 시청은 92%이고 휴식, 몸치장 등 거의 모든 행위가 정지구들에서 일어나고 있다. 생리위생 행위 중 세면, 세족, 목욕행위는 부스개와 바당에서도 얼마간은 이루어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달라재

〈표 4〉 일상행위별 공간이용

N=124, 중복응답, f(%)

행위		공 간	정 지 구 들	웃방	고방	부스개	바당	마당	기타	계
식 사 및 단 란 행 위	식사		124 (100.0)	-	-	-	-	-	-	124 (100.0)
	간식		97 (99.0)	1 (1.0)	-	-	-	-	-	98 (100.0)
	T.V 시청		107 (92.2)	9 (7.8)	-	-	-	-	-	116 (100.0)
	가족 대화		121 (96.8)	4 (3.2)	-	-	-	-	-	125 (100.0)
계			449 (97.0)	14 (3.0)	-	-	-	-	-	463 (100.0)
생 리 위 생 행 위	휴식		118 (90.0)	11 (8.4)	1 (0.8)	-	-	1 (0.8)	-	131 (100.0)
	세면,세족, 목욕		24 (17.1)	-	-	91 (65.0)	25 (17.9)	-	-	140 (100.0)
	요강 사용		-	-	-	-	6 (85.7)	1 (14.3)	-	7 (100.0)
	몸치장		108 (74.5)	19 (13.1)	8 (5.5)	4 (2.8)	5 (3.4)	1 (0.7)	-	145 (100.0)
계			250 (59.1)	30 (7.1)	9 (2.1)	95 (22.5)	36 (8.5)	3 (0.7)	-	423 (100.0)
작 업 행 위	의류관리		92 (87.5)	11 (10.5)	-	-	1 (1.0)	-	1 (1.0)	105 (100.0)
	음식준비		20 (12.7)	-	-	138 (87.3)	-	-	-	158 (100.0)
	상품매매/가계부		83 (73.5)	-	-	2 (1.8)	19 (16.7)	4 (3.5)	5 (4.4)	113 (100.0)
계			195 (51.9)	11 (2.9)	-	140 (37.2)	20 (5.3)	4 (1.1)	6 (1.6)	376 (100.0)
자녀 양육 및 교육	애기 양육		19 (79.2)	4 (16.7)	1 (4.1)	-	-	-	-	24 (100.0)
	자녀 교육		24 (57.1)	15 (35.7)	2 (4.8)	-	-	-	1 (2.4)	42 (100.0)
계			43 (65.1)	19 (28.9)	3 (4.5)	-	-	-	1 (1.5)	66 (100.0)
취 미 · 종 교 활 동	독서		61 (79.2)	16 (20.8)	-	-	-	-	-	77 (100.0)
	운동		3 (37.5)	2 (25.0)	-	-	1 (12.5)	2 (25.0)	-	8 (100.0)
	기도/치성		6 (75.0)	1 (12.5)	-	-	-	-	1 (12.5)	8 (100.0)
	예술 활동		8 (88.9)	1 (11.1)	-	-	-	-	-	9 (100.0)
계			78 (76.5)	20 (19.6)	-	-	1 (1.0)	2 (1.9)	1 (1.0)	102 (100.0)

의 겨울이 추운데도(영하 20~30℃) 정지구들에서 요강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겨울이 이곳보다 훨씬 덜 추운 전남지방 농가에서는 90%가 아직도 안방에서 요강을 사용하고 있는 것(고도임 ; 1966)과는 대조적이다.

달라재 농가 주부의 작업행위도 정지구들에서 행해지고 있었다. 음식준비는 부스개(87.4%)에서 주로 행해졌는데 이는 모든 농가의 부스개 옆에 펴뜨나 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가마솥과 바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

다. 따라서 정지구들에서 음식준비를 하는 경우는 12.6%에 불과하다.

자녀 양육 및 교육행위도 정지구들이 중심이 되고 있다. 자녀 양육 항목에 대한 응답 가구수가 적은 것은 노부부, 1인 가구 및 아이들이 없는 가구가 많기 때문이다.

취미·종교 활동을 보면 정지구들에서 대부분의 행위가 이루어지는데 전체적으로 독서를 많이 하고 있었고, 운동, 기도나 치성, 예술활동을 하는 가구는 적었다. 농가주부들의 이러한 취미·종교 활동은 현재는 소수지만 앞으로 사회, 경제적 여건이 더 좋아진다면 이 행위도 차츰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 4. 정지구들에 비치된 가구(家具)

조사대상 농가의 가구를 조사한 것은 <표 5>와 같다. 가구는 보통 가구와 전자제품과

소품등으로 구분된다. 가구 보유 현황을 보면 그릇장(96.7%), 이불장(86.3%), 진열장(59.7%), 옷장(38.7%), 책상(29.8%), 걸상(24.2%) 순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정지구들에는 그릇장이 100%, 진열장이 35.5%, 화장대가 57.9%, 옷걸이가 80% 비치되어 있었다.

전자제품으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이 TV 세트(91.9%), 그 다음이 라디오(44.4%), 오디오(24.2%)의 순이었다. 이 가전제품의 1/3이 정지구들에 비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옷방에 비치된 것도 많으나 거의 다 정지구들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정지구들 쪽을 향해 놓았다.

소품 중 많이 보유한 품목이 벽시계(90.4%)인데, 정지구들의 벽면에 걸어 놓았다. 그리고 사진들에는 가족과 친척의 혼인

<표 5> 가구 보유 및 비치장소

N=124, f(%)

항 목	보유 가구수	비 치 장 소							보유수량*	
		정지구들	옷방	고방	건너칸	한옷방	한옷 고방	창고		
가 구	그릇장	120( 96.7)	120(100.0)	-	-	-	-	-	-	120(100.0)
	이불장	107( 86.3)	3( 2.7)	89( 80.9)	13( 11.8)	1( 0.9)	2( 1.8)	2( 1.8)	-	110(100.0)
	진열장	74( 59.7)	27( 35.5)	46( 60.5)	1( 1.3)	-	2( 2.6)	-	-	76(100.0)
	옷장	48( 38.7)	1( 2.1)	39( 81.2)	5( 10.4)	1( 2.1)	1( 2.1)	1( 2.1)	-	48(100.0)
	책상	37( 29.8)	-	29( 78.4)	2( 5.4)	4( 10.8)	1( 2.7)	-	1( 2.7)	37(100.0)
	걸상	30( 24.2)	2( 6.7)	22( 73.3)	3( 10.0)	1( 3.3)	1( 3.3)	-	1( 3.3)	30(100.0)
	화장대	19( 15.4)	11( 57.9)	8( 42.1)	-	-	-	-	-	19(100.0)
	침대	11( 8.9)	2( 18.2)	4( 36.3)	1( 9.1)	1( 9.1)	-	1( 9.1)	2( 18.2)	11(100.0)
	책장	8( 6.4)	-	7( 87.5)	1( 12.5)	-	-	-	-	8(100.0)
	종합장	5( 4.0)	1( 20.0)	4( 80.0)	-	-	-	-	-	5(100.0)
	서랍장	3( 2.4)	-	3(100.0)	-	-	-	-	-	3(100.0)
	옷걸이	5( 4.0)	4( 80.0)	1( 20.0)	-	-	-	-	-	5(100.0)
	보조탁자	3( 2.4)	1( 33.3)	1( 33.3)	1( 33.4)	-	-	-	-	3(100.0)
보조의자	1( 0.8)	-	1(100.0)	-	-	-	-	-	1(100.0)	
계			172( 36.1)	254( 53.4)	27( 5.7)	8( 1.7)	7( 1.5)	4( 0.8)	4( 0.8)	476(100.0)
전 자 제 품	TV세트	113( 91.9)	44( 38.3)	70( 60.9)	-	-	1( 0.8)	-	-	115(100.0)
	오디오세트	30( 24.2)	8( 26.7)	20( 66.7)	2( 6.6)	-	-	-	-	30(100.0)
	라디오	55( 44.4)	21( 39.6)	37( 69.8)	-	1( 1.9)	-	-	-	59(100.0)
계			73( 35.8)	127( 62.2)	2( 1.0)	1( 0.5)	1( 0.5)	-	-	204(100.0)
소 품	벽시계	112( 90.4)	103( 91.2)	10( 8.8)	-	-	-	-	-	113(100.0)
	사진들	51( 41.2)	40( 76.9)	12( 23.1)	-	-	-	-	-	52(100.0)
	그림	8( 6.4)	6( 75.0)	2( 25.0)	-	-	-	-	-	8(100.0)
	화병	10( 8.0)	4( 40.0)	5( 50.0)	-	-	1( 10.0)	-	-	10(100.0)
계			153( 83.6)	29( 15.8)			1( 0.6)	-	-	183(100.0)



식, 환갑잔치, 돌잔치, 특별 기념일에 찍은 사진을 여러 장 넣어 걸어 두었는데, 1~3개씩 보유한 집이 41.5%이다.

종합적으로 보면 일상생활의 모든 행위가 정지구들에서 일어나고, 전자제품, 소품, 진열장, 화장대 등 많은 가구가 정지구들에 비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어, 달라재 전통농가에서는 정지구들 중심의 생활을 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 Ⅲ. 결론 및 제언

달라재 지방의 명동촌, 신동촌, 영암촌, 대홍촌은 중국 길림성 용정시 지신진의 10개촌 중에 일부로서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에 형성된 개별 이주촌이다. 이 4개촌 중 신동촌과 영암촌은 순수 조선족 마을이고 명동촌과 대홍촌은 극소수의 타민족이 함께 사는 마을이다.

이 곳 농민들은 거의 다 함경북도에서 조상들이 이주해와서 함경북도식 양통형 주거평면의 집을 짓고 거주하였으며 지금도 이 형식을 보존하고 있다. 최근 새로 지은 벽돌집도 이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정지간이 특색인 양통형 집에서는 대다수가 가마솥 세 개를 설치하고 나무를 때어서 구들을 데우고 동시에 취사준비를 하고 있으며 온돌방에서는 좌식생활을 하고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특히 호도거리제가 실시된 후로 사람들은 더욱 열심히 일하여 농가생활이 여러면으로 향상 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과 제언을 서술한다.

1. 평균 가족수가 3.25명으로 감소되고 핵가족이 많으며, 호주 평균 연령이 53.6세로 높아지고 있어 이 곳 농촌의 가구당 인구감소 현상과 고령화 현상을 알 수 있다. 남자의 교육 정도가 여자보다 높아서 남녀평등을 주장하는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남존여비사상의 잔재가 남아 있다. 이 곳 주민의 직업은 모두 농업인데 부업과 겸업이 약간씩 증가하고 있다.

2. 이 곳 농가의 절대 다수가 함경북도식 양통형 주택으로서 고유의 온돌 난방으로 좌식생활을 하고 있다. 거주기간은 평균 약 22년으로 농민으로는 이사를 자주 다녔다. 농가의 규모는 5칸집이 가장 많았고, 면적 규모는 평균 15.5평이다. 지붕 재료는 초가지붕이 제일 많고, 그 다음이 양기와, 한기와 순이다. 초가지붕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대신 양기와 지붕이 증가하고 있다. 정지구들의 규모는 평균 3.0평이다.

3. 달라재 농가의 정지구들은 한국의 안방과 같이 가족생활의 중심 공간이다. 이 정지구들에서 대다수의 부부와 어린이가 취침하고, 기거하며, 식사와 간식, 가족대화, T.V 시청, 휴식 등이 이루어진다. 이 모든 행위가 좌식생활로서 한국적 온돌 문화를 유지하고 있다.

4. 주택내 가구 보유 및 비치장소로 그릇장은 예외없이 정지간에 비치되어 있다. 그 외의 가구와 전자제품 및 소품 등은 옷방에 비치한 것도 있으나 정지구들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정지구들을 향해서 놓여 있다. TV 시청은 농민들의 가장 큰 오락거리이다. 소품(小品)으로 벽시계, 사진틀 등이 있는데 거의 다 정지구들에 걸려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장차 통일을 대비하여 북한 주민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고, 함경도의 농가 연구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농가 주택과 농가 생활을 역사적으로 서술하는 데도 공헌할 것이다.

끝으로 첫째, 이와 같은 조사를 연변지구의 다른 지역들, 즉 장백 조선족 자치현과 안도현, 도문시, 훈춘시 지역에서도 조사하여 비교·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연변 자치주내 부락 중 한족이 많이 사는 농촌을 조사하여 조선족 농가의 주생활과 비교, 연구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 주

1) 조선족을 한민족(韓民族)이라고 하는 것이 더 타당하나 한족(漢族)과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조선족이라고 부른다.

- 2) 유사종단연구(quasi-longitudinal study) : 일종의 통시적(通時的) 분석으로 주거 문화가 언제 어떻게 변했는가를 연구하는 것.
- 3) 달라재 : 용정지방 명동촌, 장재촌, 신동촌, 영암촌과 대흥촌 일대의 옛날 명칭으로, 한문으로 대립자(大礮子) 혹은 대랍자(大拉子)를 달라재로 불렀다.
- 4) 툰(屯) : 자연부락의 개념으로 한 개의 작은 마을인데 이것이 모여서 촌(村)을 이룬다. 명동촌은 7개 툰으로 구성되었다.
- 5) 호도거리제도 : 중국에서 집단체제의 농토를가구별로배분한토지개혁제도이다. 1978년에 제도가 마련되고 연변지역에서 1982년에 실시되었다.
- 6) 웬(元) : 1웬은 한국돈으로 약 100원이다. 1997년 4월 한우 쇠고기 1근(500g)에 8웬, 쌀 1근에는 1웬 50전~2웬이다. 농사 일 하루 품삯은 25웬이다.
- 7) 부스개(부스깁) : 불 때는 아궁이가 있는 곳인데 이 움푹 파진 곳의 윗면을 나무널 판지로 막아서 불을 때지 않을 때는 부엌 평면을 넓게 쓸 수 있다.
- 8) 바당 : 본채 출입구쪽의 흙바닥을 지칭하는데, 현재는 시멘트로 마감처리 되고 있다.
- 9) 명동촌의 송길연 촌장(서기 겸직) : 새도로 주변의 초가집을 양기와 집으로 바꾸겠다고 신청하면 500웬을 받아서 집주인이 300~500웬을 보태서 지붕개량을 하였다고 한다.

## 參 考 文 獻

1. 강영환(1994), "중국 연변 지구 조선족의 주거 공간 및 생활방식", 한국건축 역사연구 5.
2. 강영환(1996), "북한 지역 전통주거에 관한 연구(1)", 한국건축사연구 10.
3. 고도임(1995), "전남 승주지방 전통농

가와 주생활의 변천", 가톨릭대 학교 생활과학연구논집 15(1).

4. 고도임(1996), "구술사에 의한 전통농가 노주부의 결혼당시와 현재 주생활의 비교", 한국주거학회 7권 2호.
5. 국립민속박물관(1996), 중국 길림성 한인 동포의 생활문화, 국제민속박물관 학술 총서 19.
6. 권태환(1996), 세계의 한민족: 중국, 통일원.
7. 김동화 외 연변대학 중국 조선족 총서 편찬위원회(1994), 중국 조선족연구, ①, ②, ③.
8. 김봉열(1994), "중국 연변 지구 조선족의 마을과 주거", 한국건축역사 연구5.
9. 김성우(1987), "동양 건축에서의 집과 사람-하나의 동양적 관점으로서의 한국성", 공간 238.
10. 김숙련 등(1991), 「중국 연변, 김영사.
11. 김종영 외 3인(1996), "중국 조선족 주거의 공간 구성형태와 그 지역 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7권1호.
12. 리희선(1993), 「조선 건축사 I, II, III」, 도서출판 발언사.
13. 박경휘(1987), 「조선 민족사 연구」, 중국 심양 료녕출판사.
14. 박경휘(1994), 중국 조선족의 의식주 생활 풍속, 집문당.
15. 심혜숙(1992), 「중국 조선족 취락지명과 연구 분포」, 연변대출판사.
16. 신재익(1994), 중국 연변 지구 조선족 주거의 건축적 특징, 한국건축역사 연구 5.
17. 연변대 편찬위원회(1995), 중국 조선족의 우월성 연구, 서울대 출판사.
18. 용정현지(1989), 용정현 지방지 편찬위원회.
19. 울산대 건축연구소(1995), "장재촌", 울산대 출판부.
20. 이완기(1994), 「북한에서의 건축사 연구」, 도서출판 발언.
21. 이지택(1972.10.12~1972.11.21), 북

간도 남기고 싶은 이야기들, 중앙일보·동양방송.

22. 전경수(1989), "중국 동북의 조선족: 민족지적 개황", 사회과학과 정책 연구 11(2),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23. 중국 인민정치 협상회의 룡정현 위원회

(1986), 룡정문사자료 1, 2, 3집.

24. 한상복·권태환(1993), 「중국 연변의 조선족」, 서울대 출판부.
25. 김필소조(1988), 「연변 조선족 자치주 개황, 중국의 우리 민족」, 도서출판 한울.

